

# 트럼프, 9년만에 중국 방문...시진핑과 '세기의 담판'

### 13일 베이징 도착, 2박3일 일정 돌입 무역·공급망·대만 문제도 논의할듯 트럼프-김정은 '깜짝회동'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방중 일정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미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베이징 시내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해 휴식한 뒤 이튿날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세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주하게 되는 14일 오전 10시다.

두 정상의 대회는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8-10일 이후 약 9년 만이다.

당초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말-4월 초로 예정됐었지만, 그보다 한달 앞서 시작된 미-

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탓에 방중을 2주일가량 앞두고 연기됐다.

방중 연기 사유는 대통령의 '전쟁 지휘'였다. 이어 미-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한달 넘도록 휴전 상태다. 그사이엔 전쟁을 끝내고 중국을 방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불발된 셈이다.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전쟁의 향배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전쟁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상대를 압박하고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각자 입장에서 이란 전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담보된 중전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중국의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 판매와 관련해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분노' 작전은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다분하다. 이란의 전쟁 자금과 중국의 에너지 수급을 동시 타격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시 주석은 이란 전쟁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역이용해 협상력을 극대화하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등 현재 거론되는 다른 회담 의제들의 논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휴전' 상태인 관세전쟁을 비롯해 미국의 무역법 조사, 중국의 희토류 공급 통제, 미국의 첨단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대한 미-중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 문제의 경우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최우선으로 미국의 '독립 반대' 입장을 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두 정상이 여러 의제에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만남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을 한 차례 연기를 거치면서 실무적 조율이 충분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일각에선 지난 2019년 '판문점 회동'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관련 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데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유인이 작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 '곰과 전쟁' 일본서 '괴물 늑대 로봇' 주문 폭주

### 공사 현장·골프장서도 큰 인기

야생 곰의 잦은 민가 출몰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일본에서 동물 퇴치를 위해 개발된 늑대 모양의 로봇 '몬스터 울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훗카이도 나이에초의 기계 부품 가공업체 '오타 세이키'는 올해 들어 늑대 로봇에 대한 주문이 예년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오타 세이키는 일본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이 로봇은 적외선 센서로 동물의 접근을 감지하면 작동한다.

동물을 감지하면 공사 현장 수준의 소음 50여 가지를 무작위로 내보내고, 눈 부분에 설치된 고성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강하게 깜빡여 곰을 위협하는 방식이다.

이 업체는 당초 사슴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용도로 2016년부터 로봇 개발을 시작해 현재까지 380대 이상을 출하했다.

하지만 최근 곰이 민가뿐 아니라 도심 인근까지 나타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이에 따라 주문하더라도 실제 설치까지는 2-3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다.

오타 세이키 사장은 "기존에는 주로 농가에서 주



몬스터 울프(늑대 로봇) 설치 사례. /연합뉴스

머니 들어왔지만, 최근에는 공사 현장이나 골프장 등에서도 설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그만큼 곰이 인간의 생활권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인도 의대 입학 국가시험 문제 유출...학생들 항의 시위

인도 전역에서 220만명이 응시한 의대 입학 국가시험이 이달 초에 치러졌으나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인디언익스프레스와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인도 연방 정부 산하 국가시험관리청(NTA)은 지난 3일 치러진 '전국 의대 (학부) 입학 자격시험'(NEET-UG)을 무효화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이 시험이 도입된 이후 무효화한 첫 번째 사례라고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전했다.

NTA는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된 뒤 자체 조사 결과와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을 근거로 해당 시험 절차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학생들과 국가시험 제도의 신뢰를 고려

해 무효화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시험에는 인도 전역 5천개 고사장에서 수험생 22만5천명이 응시했다.

NTA는 지난 7일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 당국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재시험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의대 진학을 준비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날 텔레에서 정부의 부실한 시험 관리를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 美·이란 공격 재개하나...작전명 '슬레지해머' 변경 검토

### '장대한 분노'서 '대형 망치'로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휴전을 깨고 전쟁을 재개할 경우 작전명을 기존의 '장대한 분노'(Epic Fury)에서 '슬레지해머'(Sledgehammer)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N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한 백악관 관계자는 대이란 군사작전이 재개될 경우 새로운 명칭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거론되는 작전명으로는 '대형 망치'를 뜻하는 '슬레지해머'가 있으며, 그 외에도 복수의 다른 작전명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작전도 '한밤의 망치'(Midnight Hammer)로 명명했었다.

2명의 미국 정부 관리들은 미군의 현재 해당 지역 주둔 병력과 자산은 지난 2월 '장대한 분노' 작전 개시 당시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우리는 지난 2월27일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더 큰 화력과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공개 발언을 통해 미군이 추가 함모 전단을 배치하고, 기

존에 두 달간 투입했던 일부 전력을 교체 및 재 정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새 작전명 검토는 기존의 '장대한 분노' 작전이 종료됐다고 선언한 이후의 후속 조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임)은 지난 5일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가 목표를 달성하고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장대한 분노'는 미국이 지난 2월28일 대이란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붙인 이름이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전투 개시 후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의회에 전투 개시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미군 병력은 60일 내로 철수하거나 의회의 군사행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대한 분노' 작전이 40일간의 전투 끝에 중단됐으면서, 60일 안에 전쟁이 끝났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새 작전명으로 대이란 군사행동이 다시 시작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전쟁의 시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의회의 '60일 제한'을 또 우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뉴스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